

문예동무용경연대회의 《개근생》

문예동 니시도꼬지부

문예동 니시도꼬지부 정진동무라하면 6차에 걸쳐 진행되어 있는 문예동무용경연대회에 빠짐 없이 꾸준하게 참가하고 있는 동무로 알려져있을것이다.

중급부시절 운동소조에 들어가 건강을 손상한 그에게 운동소조보다도 피곤하지 않을거라는 친구의 권유로 중급부 3학년부터 무용소조에 들어간것이 시작이었다.

그의 무용활동에서 잊혀지지 않으며 현재도 자신의 무용의 기본으로 삼고있는것이 1978년 재일조선학생예술단과 1985년 교육일군대회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의 따뜻한 품에 안긴 나날 들에 관람한 고상하고 아름답고 활활한 무용예술작품들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예술적물동으로 훌륭하게 형상한 무용작품에 완전히 매혹되어 조선무용을 무척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학생시기에는 소조활동, 교원시기에는 소조지도에서 정열적으로 무용활동을 벌렸다.

그러나 애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 시간적여유가 없어 점점 무용과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1996년부터 3년간 조국의 초빙강사에 의한 무용강습이 그의 무용에 대한 정열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민족무용의 고유한 호흡쓰임, 춤가락을 조국의 숨결과 더불어 배우는 행복한 나날들, 민족의 얼과 정서를 자래우는 더없이 귀중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정진동무에게 있어서 조선무용은 다만 춤을 춘다는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내면세계가 어떤가를 확인하는 신선한 마당이며 경연대회의 <개근>은 바로 그것을 자신의 총화마당으로 여기고 꾸준하게 참가하여온 결과인것이다. 또한 경연대회는 그에게 있어서 조선무용을 사랑하는 문예동동무들과의 교류를 깊이고 젊은 동무들한테서 적극 배워 자극을 얻는 절호의 마당인것이다.

마지막에 그는 항상 자기를 이해하고 협력해주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독무 고급부부문	2등 《부채춤-명승명가-》 문예동도끼이지부
2등 <바라춤> 무용교실<무희> 권혜령	3등 《부채춤》 문예동히로시마지부
3등 <줄채방울춤> 무용교실<무희> 정애향	
독무부문 가조	군무부문 가조
금상 《무당춤》 문예동효고지부 김정애 동무 《소고춤》 문예동도끼지부 리옥민동무	금상 《은 세상에 만발한 김일성화》 문예동효고지부
은상 《조개춤》 문예동니시도꼬지부 정진동무	은상 《모란봉》 문예동오사까지부 《무궁의 사랑》 문예동교또지부 《우리의 금수강산》 문예동도끼지부
독무부문 나조	동상 《바라춤》 문예동도끼지부
1등 《젊은 무희》 문예동도끼이지부 안청미동무	
2등 《장고춤》 문예동도끼이지부 오미화 동무	
3등 《소고춤》 문예동효고지부 서미래동무	
중무부문 가조	군무부문 나조
금상 《소고춤》 문예동효고지부	1등 《타향무》 문예동도끼이지부
은상 《경축》 문예동히로시마지부	2등 《기원》 문예동효고지부
《쌍박춤》 문예동도끼지부	3등 《소고춤》 문예동도끼이지부
동상 《산천가》 문예동교또지부	
중무부문 나조	여성동맹효고본부상 : 문예동효고지부 군무 가조 《은 세상에 만발한 김일성화》
1등 《들복춤》 문예동효고지부	여성동맹 허가시고베지부상 : 문예동교또지부 효고청상회상 : 문예동도끼지부
	단체상 문예동효고지부

舞 朝鮮 무용 통신

発行 : 在日本朝鮮文學藝術家同盟中央舞蹈部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4-33-14 TEL03-3817-0431

제13호 (루계 제13호)

주제99 (2010)년 6월 26일 (토)

제6차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무용경연대회

2009년 7월 19일 兵庫県 芦屋市民センター<ルナホール>에서 <제6차 재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무용경연대회>가 약 400명의 경연관계자와 관람자들로 성대히 진행되었다.

2007년 11월 23일 제5차 경연대회의 다음날인 24일에 전국무용부장회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5차까지 계속해온 이 경연대회를 역시 이어나가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경연대회를 조직진행하게 되었으며 1년전부터 준비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민족문화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특히는 조선무용연구소에서 배우는 연구생들의 독무부문을 내용으로써 문예동사업에서의 새세대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는 대회로 되었다.

안내장을 보낸 11개소 조선무용연구소중 6개소 연구소에서 초급부부문 22명, 중급부부문 19명, 고급부부문 2명이, 각 문예동지부에서는 28연목 연 122명이 출연하였다.

처음으로 경연대회에 참가한 히로시마문예동 청년무용부 부부장 리금주(25살)동무는 《처음으로 문예동무용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매개 지역에 거주하는 문예동성원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활발히 활동하고있는가는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 지방에서도 더 많은 문예동활동을 하면서 다음번 무용경연대회에서는 꼭 금상을 타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고 감상을 말하였다. 3년연속 단체상을 수여받은 효고문예동지부 문유미부장은 《...3년연속 단체상을 받는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우리 효고동무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2년후의 경연에서는 더 멋진 효고의 모습을 보여 드릴수 있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잘해나가겠습니다. 교또, 히로시마동무들이 같은 무대에서 춤추게 된것을 기쁘게 느끼며 오래 무용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 함께 가져 나갑시다.》고 하였다. 폐회식에서 문예동중앙 김정수위원장께서는 처음으로 경연에 참가한 문예동히로시마지부와 몇년만에 나온 문예동교또지부동무들을 평가하면서 문예동교또지부가 내은 군무 창작작품 《무궁의 사랑》 처럼 무용음악도 안무도 그 지역문예동에서 창작함으로써 일본에서 사는 우리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마음을 진실하게 그린 창작작품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각 지역문예동맹원동무들이 한데 모여 간단한 교류모임과 연회를 가졌다. 경연성적은 다음과 같다. (4면에도 계속됨.)

독무 초급부부문	무용교실<무희>	오령향	독무 중급부부문	리미남무용연구회	최선아
1등 <패랭이춤>	춤무용교실	송경희	1등 <패랭이춤>	리미남무용연구회	리려하
2등 <물동이춤>	마이조선무용연구소	박실희	2등 <소고춤>	리미남무용연구회	리사애
3등 <팽이춤>	무용교실<무희>	김미란	3등 <팽이춤>	마이조선무용연구소	현순화
입선 <복춤>	마이조선무용연구소	김소나	입선 <도라지>	무용교실<무희>	리일화
<팽이춤>	히메지조선무용연교실	박지순	<장고춤>	춤무용교실	김향나
<초립동>	히메지조선무용연교실	백사야	<직포공의 마음>	마이조선무용연구소	안가란
<초립동>	히메지조선무용연교실	리우희	<젊은 무희>	마이조선무용연구소	강수미
<초립동>			<조개춤>		